



프랑스 소요는 국가와 경찰에 맞서는 정당한 반란이다

며칠 동안 프랑스가 밤낮으로 불타고 있다. 경찰서, 도서관, 학교, 그 밖의 많은 관공서가 불길에 휩싸였고 밤마다 거리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수많은 경찰 병력과 특수 부대가 몇몇 도심지에서 소요를 진압했다. 그러나 빈곤층과 북아프리카계 등이 많이 거주하는 몇몇 교외 지역에서는 격렬한 소요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경찰이 알제리계 10대 청소년 나헬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오랜 세월 체제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온 사람들이 반격에 나섰다.

이번 소요는 거대한 사회적 반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번 소요는 프랑스 노동계급이 연금 개혁에 맞서 정부·사용자들과 닷 달 동안 거대한 투쟁을 벌인 지 불과 몇 주 만에 분출했다.

소요의 규모는 앞선 연금 개혁 반대 투쟁이 프랑스 사회에 불쏘시개를 잔뜩 남겨 놓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마크롱 정부는 연금만 공격한 게 아니었다. 마크롱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연금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자 인종차별적 정책을 강화했다. 또, 저항을 분쇄하려고 경찰력을 강화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공격했다.

연금 개혁 반대 투쟁은 민주주의와 경찰 폭력,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원하느냐 등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했다. 이번 소요 또한 체제에 관한 중대한 물음들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투쟁들은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지배계급, 국가의 강제력과 구조에 맞선 전(全)계급적 대결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프랑스 개혁주의자들은 이 소요에 반대한다.

그러나 흑인과 아랍계가 대다수인 프랑스 노동계급 청년들의 용기와 단호함을 지지해야 한다.

물론 이 소요는 프랑스 노동계급에게 어려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요 참가자들은 국가와 국가의 무장력과 정면

대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다고 노동계급이 자동으로 그와 같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과, 경찰·국가에 맞선 투쟁을 연결시키는 것

이다.

사회주의자들과 투쟁적인 노동자들은 그런 연결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 소요 참가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조직된 노동계급의 힘과 연결시켜야 한다.

〈노동자 연대〉 정규호에는

정부의 강경 우익화와 노동자 저항,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법원의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 공격, IAEA 눈가림 보고서 발표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의 살인과 거짓말

경찰이 6월 27일 파리 외곽의 낭테르에서 17세 소년 나헬을 총으로 살해한 후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알제리계인 나헬이 차를 세우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게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위터에 공개된 영상에서 경찰은 교통 체증으로 멈춰선 나헬의 차량 옆에 그냥 서 있었다.

한 경찰이 나헬에게 총을 겨눴고, 나헬이 차를 빼려고 하자 경찰은 나헬의 심장을 쏘았다. 그전에 이 살인 경찰은 "머리에 총알을 박아 주마" 하고 말했고, 다른 경찰관은 "짜 버려" 하고 말했다.

이 사건의 근원에는 보통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경멸이 있다. 그 경멸은 인종

차별로 더 강화됐다.

경찰에 의한 살인이 급증한 것은 2017년 당시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사회당 소속)가 '정당방위'를 위한 경찰의 총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지시 불응'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최소 13명이 사망했다.

사건 다다음날 경찰은 나헬의 모친 무니아가 지지한 6000명 규모의 추모 시위를 최루탄으로 진압해 울분을 더욱 키웠다. 경찰과 경찰 말을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들은 피해자를 헐뜯었다. 나헬이 무시무시한 전과자라는 거짓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청년들의 약탈은 정당한 분노

소요 참가자들의 주요 표적은 경찰서와 국가 상징물이었다. 동시에 소요 참가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점을 약탈하기도 했다. 보수 언론들은 이런 약탈 행위를 소요를 헐뜯는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

많은 좌파들도 이런 약탈 행위에 선을 긋는다.

그러나 소요 참가자들의 약탈은 정치적 행위다.

사용자들과 정치인들의 조직적인 도둑질에 기반한, 불평등이 깊게 아로새겨진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에서 뽑아낸 부의 극히 적은 일부를 사람들이



되찾으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잘못된 일도 아니다.

대기업들은 행복과 삶의 충만함이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 데 달려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러면서도 그 상품들을 구매할 돈은 갖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마음껏 누리려 한다는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된다.

국가는 이에 대해 보복을 시작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7월 3일 아침까지 3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6월 30일부터 체포된 사람들의 '재판'이 시작됐고, 법원은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거리에서 벌어지는 전투적인 대중 저항만이 나헬을 위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파시스트들의 폭력을 경계해야 한다

2017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흑인이나 아랍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은 거리에서 경찰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받을 확률이 20배 높다고 한다.

마린 르펜의 파시스트 정당이 지난 대선에서 선전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세를 키우고, 프랑스 정부가 인종차별적 법률을 강화하면서 흑인·아랍계에 대한 탄압이 더 심해졌다.

소요가 벌어지자 일부 극우는 경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폭행하려고 거리로 나왔다.

이는 파시스트들이 선거에서 성과를 내면, 거리에서 파시스트 깡패를 양성하려 하는 자들도 힘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는 소요에 비하면 아직 거리 극우의 힘은 보잘 것없다. 노동자 조직들이 발휘할 수 있는 힘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파시스트들은 경찰 내에서 가장 악질적인 인자들을 행동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인종을 불문한 청년과 노동자들의 전투적 행동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소요를 비난하는 프랑스 공산당 대표

프랑스의 일부 좌파는 이번 소요 사태에서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했다. 프랑스 공산당 지도자 파비앵 루셀은 소요 참가자들에게 역겨운 비난을 잇달아 퍼부었다. 6월 30일 루셀은 "그날 밤의 폭력을 전적으로 규탄한다"고 트위터에 썼다. 경찰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루셀은 "좌파라면 공공 서비스 약탈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수호를 지지해야 한다"고 썼다. 정부가 "공공 서비스(경찰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탄압을 정당화하는데 말이다. 루셀은 "공공의 안녕을 위한 더 강력한 수단"을 촉구했다.

루셀은 소요가 벌어지는 동안 소셜미디어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루셀은 오랫동안 이민자 규제 강화를 촉구한 전력이 있는 자이기도 하다. 사회적 위기가 프랑스를 휩쓰는 지금, 루셀은 저항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왜 우파는 젠더 이슈에 집착하는가?

7월 12일(수) 오후 8시

발제 정진희

〈정체성 정치와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저자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편집자

참가신청 bit.ly/0712-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